

1. 정답: ② 농포동 유적지에서 발견된 토우는 여인상을 조각한 것으로 다산과 풍요를 기원하는 신앙의 형태로 제작된 것이다. 신석기 시대에는 구석기와 마찬가지로 농업생산력이 높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씨족 구성원들이 노동에 가담해야만 생존할 수 있었다. 남녀 간에 노동의 역할의 구분은 있었지만 계급사회의 특징인 가부장제는 청동기 사회에서 나타난다.
2. 정답: ③:신라의 관등제도는 개인생활의 범위부터 사회생활의 범위까지 제한한 골품제와 연동되었다. 골품제는 법흥왕 때 금관가야를 정복 한 후 지배층의 수가 증가하자 이를 편제하는 과정에서 정비되었다. 골품제에 따르면 진골귀족은 1등급인 이별찬의 지위까지 오를 수 있었으며 6두품은 6등급인 아찬의 지위까지 승진할 수 있었고, 5두품은 10등급인 대나마의 지위까지 오를 수 있었다. 그러나 통일을 전후로 한 시기에 중위제(中位制)라 하여 골품제의 상한을 넘어 승진할 수 있는 특진 제도가 시행되기도 하였다.
3. 정답: ②: 삼국 간의 한강 유역을 둘러싼 치열한 쟁탈전을 보여주는 비(碑)는 6세기 진흥왕이 한강 하류 지역을 장악했음을 보여주는 북한산 순수비와 한강을 둘러싸고 고구려와 치열한 경쟁을 보여주는 단양적성비, 그리고 고구려 장수왕의 남하정책으로 고구려가 한강 유역을 차지하였음을 보여주는 중원고구려비 등이 있다.
4. 정답: ②: <화엄일승법계도>를 작성해 화엄사상을 적극 수용하고 전파한 승려는 의상이며 의상은 화엄사상 전파하기 위해 부석사를 창건하였으며 아미타 신앙과 함께 관음 신앙을 적극 전파하였다. ㉠의 풍수지리사상을 도입한 승려는 교종이 아닌 도선 같은 선종 승려들이었다.
5. 정답: ①: 일본에 국서를 보내 스스로 고려 국왕이라 칭하고 고구려 계승의식을 밝힌 무왕은 발해 2대왕이다. 무왕 때 당, 신라 등과 갈등관계를 빚었던 발해는 문왕 때 당과 친선관계를 유지하며 당의 율령체제인 3성6부제를 수용하여 중앙관제를 개편하였으며 지방을 5경체제로 정비하였다. 이후 선왕 때 발해의 지방제도는 5경15부62주 체제로 정비되었다.
6. 정답: ②: 지문에서 말하고 있는 상황은 신라 하대 후삼국 시대로의 이행기에 대한 설명이다. 이 시기의 특징은 중앙귀족의 왕위계승분쟁의 지속으로 지방에 대한 통제력 약화에 따른 지방호족의 성장, 6두품 세력들의 골품제 비판과 반(反)신라적 경향, 그리고 귀족들이 착취에 따른 농민의 몰락과 초적(草賊)화, 불교에서의 선종의 유행 등을 들 수 있다. 성리학은 고려 말 안향에 의해 도입되었다.
7. 정답: ④: 고려 숙종의 후원을 받아 천태종을 창시한 승려는 대각국사 의천이다. 의천은 교관검수와 내외검전에 따라 교종과 선종의 통합을 시도하였으며 속장경을 간행하기 위해 송, 요, 일본의 불교 관련 서적을 모아 <신편제종교장총록>을 강행하였다.
8. 정답: ③: 보기 지문은 고려 성종 때 유학자인 최승로가 올린 시무28조 중 20조의 내용으로 이는 유교정치이념의 적극적 수용을 강조하고 있다. 최승로는 또한 7조에서 지방관의 파견을 건의하였다. 성종은 최승로의 건의를 수용하여 유교정치이념에 입각한 통치체제를 구축하고 12목에 지방관을 파견하고 토착세력을 향리제도로 편제하였다. 노비안검법과 과거제는 광종 때 실시되었으며 전민변정도감은 공민왕이 권문세족의 토지를 해체시키기 위해 설치한 기구이다.
9. 정답: ②: ㉠의 광군을 조직한 것은 정종 2년(947년)이며 ㉡의 김윤후가 처인부곡에서 살리타를 사살한 것은 고종 19년(1232년)의 일이다. ㉢윤관이 별무반을 조직하고 여진을 정벌 한 후 동북9성을 축조한 것은 예종3년(1108년)의 일이다. ㉣ 거란의 3차 침략시 강감찬은 이들의 침략을 귀주에서 몰살시킨 시기는 현종 10년(1019)의 일이다. ㉤ 삼별초가 개경 환도를 거부하고 강화도에서 진도를 거쳐 제주도로 이동하며 항쟁을 벌인 것은 개경 환도가 이루어진 1270년의 일이다. ㉥서희의 담판은 거란 1차 침입 때 강동6주를 획득하는 결과를 가져온 것으로 이는 성종12년(993)에 발생한 일이다. ㉦ 홍건적이 개경을 함락한 것은 홍건적 2차 침략 때인 1360년의 일이다.
10. 정답: ③: 지문의 빈 칸에 해당하는 군대는 최씨 정권 때 최우가 집권한 이후 만들어진 삼별초로 이들은 야별초를 시작으로 좌우별초와 신의군으로 구성되었다. 이들은 무신정권의 사병적 기능뿐만 아니라 국왕의 시위와 강화도에 도읍시 도적의 체포 등도 담당하였다. 여몽 연합군의 공격으로 진도 용장성에서 전사한 장군은 배중손이다.
11. 정답: ①: 제시문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은 공납제도의 개편안인 대동법이다. 대동법은 16세기 이후 지속되는 방납제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 시행된 제도이다. ②은 요역 기피로인한 군역의 요역화 현상이며 ③은 군역제도의 문란을 가져온 대립제, ④은 환곡제도의 문란을 가리킨다.
12. 정답: ①: 제시문에서 말하는 반정은 광해군과 집권세력이었던 복인을 몰아냈던 인조반정을 가리킨다. 인조반정은 서인이 주도하였으며 이들은 광해군의 중립외교에 맞서 명나라에 대한 대외명분을 강조한 대외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이것이 병자호란 이후 송시열이 주도한 북벌론의 명분이었으며 송시열은 이를 강조하기 위해 피산 화양동에 명나라 신종의 가묘인 만동묘를 설치하였고 창덕궁에는 대보단을 설치하였다.
13. 정답: ②: 제시문의 보기는 영조의 탕평정치의 의지를 보여주는 글이다. 영조는 집권 초기 소론 강경파가 주도한 이인좌의 난을 진압한 후 각 붕당의 강경파를 배제하고 온건파를 중심으로 탕평파를 구성하여 정국을 주도케 하는 완론탕평을 실시하였으며 민생 안정을 위해 균역법을 실시하였으며 동국문헌비고, 속대전, 속오례의, 무원록 등의 편찬사업을 단행하였다. 동국여지도는 영조 때 정상기가 제작한 지도이다.

14. 정답: ④: 보기에에서 말하는 기구는 삼포왜란을 계기로 임시로 설치되었던 비변사이다.

15. 정답: ④: 보기의 서적을 간행하고 과거제의 개혁을 주장한 사람은 성호 이익이다. 성호 이익은 경세치용 학파로 토지개혁에 관심이 많았으며 이를 위해 자영농의 유지를 위한 한전제를 주장하였다. 이익의 한전제는 매매 불가능한 영업전을 설정하여 자영농의 최소한의 토지 소유를 보장하자는 취지였다. 또한 이익은 봉당정치의 폐해를 지적하면서 봉당문제의 원인을 제한된 관직에 따른 문제로 파악하여 과거 시험의 주기를 늘려 인사적체를 해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16. 정답: ③: 제시문의 주장은 대원군이 서원철폐령을 실시하면서 발표한 글이다. 대원군은 서원 철폐, 호포제 실시 등 내치에 대한 개혁과 동시에 대외적으로는 통상수교거부정책을 표방하여 병인양요, 제네럴셔먼호 사건, 오펜트도굴사건, 신미양요 등으로 서양의 통상수교 요구에 맞섰다.

17. 정답: ①: 일제는 한일합방 이후 1910년대 헌병경찰제의 의한 무단통치를 단행하였으나 1919년 3.1운동을 계기로 보통경찰제를 중심으로 기만과 분열정책을 본질로 하는 문화통치로 전화하였다. 회사령은 1911년에 실시되었으며 1920년에 폐지되었다.

18. 정답: ④: 이 신문은 한글판과 영문판이 동시에 간행되었던 독립협회의 기관지 역할을 담당하였던 독립신문이다. 독립신문은 1896년 창간되었으며 이는 아관파천에 대한 홍보의 필요성을 인식했던 이범진, 박정양 등 정동파 출신 관료들에 의해 추진되었다.

19. 정답: ①: 1926년 정우회 선언 이후 사회주의세력과 이광수 등 자치론자들을 배제한 이상재 등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들은 민족유일당운동의 결과물인 신간회를 창립하였다. 신간회는 사회주의와 민족주의 진영의 기존 운동을 포괄적으로 수행하였으며 특히 광주학생운동이 발생하였을 때 민중대회를 통해 이를 전국으로 확산시키려는 계획을 세우기도 하였다. 신간회의 노력으로 광주학생운동은 전국으로 확대되어 3.1운동 이후 최대 민족운동으로 자리매김 하였다. 이 밖에 일본인의 조선 이민 정책 반대, 조선인 본위의 교육제도 실시, 노동쟁의와 소작쟁의 지원 등의 사업을 전개하였으나 민립대학설립운동은 신간회 창립 이전인 1922년 <조선교육회>와 이상재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던 운동이다.

20. 정답: ③: 광복 이후 한국의 독립문제에 대한 회의는 모스크바3상회의로 미국, 영국, 소련의 외무장관들이 모여 한국의 임시민주주의 정부 수립과 이를 위한 5개년의 신탁통치 기간 설정, 그리고 차후 모든 문제는 미소공동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논의에 대하여 박헌영을 중심으로 한 좌익세력은 찬성을 하였고 이승만, 김구 등 우익세력을 신탁통치를 제2의 식민통치로 인식하여 반대하였다. ①